

## '신비의 나라' 이집트의 수수께끼를 푼다

이집트인의 내세관과 문명의 비밀 담은 이집트서 봄

이집트에 대한 '이상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람세스》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후 이집트 문명전까지 열리는 등 이집트 특수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집트 열풍에 휩싸인 것은 일단 세기말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를 회고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대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이집트 문명의 미스터리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독서계에 이집트 관련도서 붐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이집트의 신비를 일깨워주는 가장 기초적인 문건은 '사자의 서'다. 이 문건은 통치자의 업적부터 피안의 세계를 염원하는 내용까지 다양하게 담고 있다. 특히 당시 문화적 기저를 형성하고 있던 부활사상이 담긴 내세관은 이집트인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창'이 된다.

### 이집트인의 정신세계 담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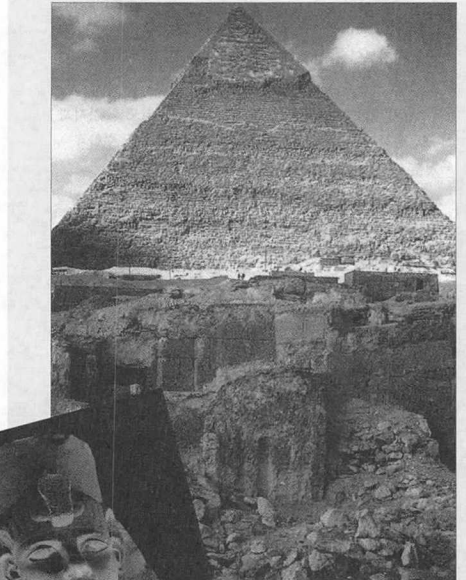
영국 대영박물관 이집트학 실장 윌리스 벤티와 독일 학자 렉시우스 등이 편찬한 책을 기초로 율긴이 서규석씨가 재구성한 《이집트 사자의 서》(문학동네)는 오천년 동안 비밀스럽게 전래된 이집트 정신의 집성체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부터 시작해 삼천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담은 '사자의 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이집트인의 자부심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자의 서'는 쉽게 후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집트 학자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 끝에 그 베일이 조금씩 벗겨져 오늘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술한 비밀의 문을 남겨두고 있다. 이 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의 발생과정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속에는 이집트인의 생활양식과 축제, 그리고 신화 등을 담았다. 이집트인의 내세관을 엿볼 수 있는 장을 지나면 '사자의 서'의 본격적인 탄생과정, 그리고 등장인물과 주문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사자의 서'와 피라미드 등에 남아 있는 수많은 글귀 속에는 이집트인의 빼어난 지혜가 담겨 있다.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4300년 전 총리대신을 지낸 프타호텝이 남긴 글이다. 프랑스 출신 이집트 학자 크리스티앙 자크가 역제한 《현자 프타호텝의 교훈》(홍은주 옮김, 문학동네)은 신의 말씀을 빌어 쓴 지혜서다. 그는 나이 백십세가 되던 해 지혜를 담은 '마흔 다섯 개의 교훈'을 저술했다. 겸손과 완전한 말의 발견, 윗사람과 논쟁하는 법, 규칙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되려거든 등 오늘날 날에도 귀감이 될 교훈을 담고 있다.

### 유적에 얽힌 역사와 비밀

이집트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나일강 계곡에서 발견됐다.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을 숭배했던 권력자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무덤을 만들었다. 신전과 무덤, 그리고 강가에서 나온 부장품은 곧 이집트 역사를 푸는 열쇠다.

오토 노이바트가 지은 《왕들의 계곡》(이규조 옮김, 일빛)은 나일강의 협곡에서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집트를 둘러싼 신비의 베일을 조금씩 벗겨간다.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부터 이집트학을 탄생시킨 나폴레옹, 상형문자의 비밀을 푼 샹폴리옹, 그리고 이집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페트리 등의 활약상과 더불어 그들이 발굴 해석한 유적들을 상세하



인류가 만든 단일 건축물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큰 쿠푸의 피라미드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람세스 2세

게 설명한다.

이집트인의 비밀을 가장 깊이 숨겨둔 유적은 단연 피라미드다. 광활한 사막에 세워진 것부터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피라미드는 당시의 문명을 상징하는 각종 유품을 쏟아냈다. 그 가운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대한 이상향을 담은 천도(天圖). 로버트 바우벨과 아드리안 길버트가 지은 《오리온 미스터리》(도반 옮김, 열림원)는 피라미드에 얽힌 비밀을 푼다. 이집트인의 내세관이 반영된 별자리 그림은 태초의 끝없는 순환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무덤 속 부활의 방에 안치된 미라는 "왕 오시리스 신은 불멸의 별이고 하늘의 여신의 아들입니다(피라미드 문헌 1469행). 불멸의 영혼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께 갑니다(피라미드 문헌 152행)"라고 읊고 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들이 별의 신을 향해 가는 입구라는 게 저자의 입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피라미드의 천도는 마치 하늘의 모습을 복사해 놓은 듯해 그 정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저자는 전한다. 피라미드는 현대과학으로 풀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기술로 창조된 인류 최상의 건축물이라는 감탄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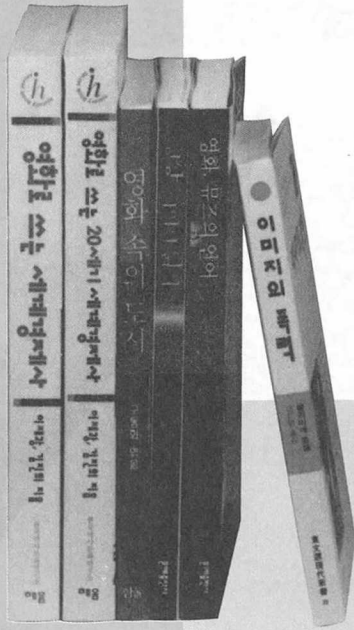
— 오완진 기자

## 인문학으로 읽는 '이미지의 제국'

역사 · 문학 · 지리학 등 인문정신으로 영화 독해

영화는 '이미지 제국'의 침범이다. 이미지를 재현하는 가장 탁월한 양식으로서 영화는 '상징과 기호'로 지구 문명권을 '통치'하고 있다.

이미지의 무차별적 공격에 압도된 시대에 인문학이 분석의 칼날을 버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영화읽기가 영화론 · 감독론 · 영화제작론이나 영상에세이 등 1차원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역사 · 문학 · 지리학 등의 인문정신으로 영화를 독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역사학과 영화 사이에는 오해와 편견의 장벽이 높았다. 역사학이 실증이라는 무기로 영화의 역사왜곡을 공격했다면, 영화는 미학적 상상력의 가치로 역사학의 편협한 실증주의에 항의해왔다. 최근 출간된 《영화로 쓰는 세계경제사》(이재광 · 김진희 지음, 혜음)는 역사학과 영화의 '귀머거리 대화'에 말문을 트려는 시도다.

**역사학과 영화의 '귀머거리 대화'에 말문 터**  
부부 역사학자가 쓴 이 책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부터 사회주의 붕괴까지 다룬 영화를 통해 세계경제사를 새롭게 썼다. 첫째권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팽창과정을 피해 중심으로 서술했다. 둘째권은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20세기를 '헤게모니 전쟁'으로 독특하게 파악한다. 역사를 단순한 배경과 소도구로만 취급하는 피상적 서술에서 벗어나 영화 속의 세계상을 엄밀한 사료분석과 고증정신으로 서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화는 공간과 장소 속에서 서사를 재현한다. 여기에 공간의 인간학적 분석을 주입무로 하는 지리학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영화 속의 도시》(구동희 엮음, 한울)는 '영화 속에서 공간과 장소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영화 속에 비친 도시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다. 즉 영화의 배경에 깔린 도시의 경관 및 도시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영화 속 도시를 읽는다.

예컨대, 〈벽시〉 〈카지노〉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에서 라스베이거스는 도시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오락기업의 공간이며, 〈구로아리랑〉과 〈장미빛 인생〉의 구로동과 가리봉동은 고단한 노동이 이뤄지는 공장과 가리봉 오거리의 곱창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겨운 삶과 장미빛 꿈이 펼쳐지는 곳이다. '영상지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주제의 물꼬를 튼 책으로 주목할 만하다.

### 뮤즈의 향기로운 언어, 영화

시(문학)와 영화 사이의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멀다. 송희복의 《영화, 뮤즈의 언어》(문예출판사)는 영화가 문학텍스트의 연장이요 확장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그 거리를 좁힌다. 제목에서 암시하듯 이 책은 "영화는 시의 여신, 예술의 여신 뮤즈가 쏟아내는 감미로운 노래, 향그러운 언어"라는 관점에서 시적 영상을 읽어낸다.

저자에 따르면, 시적 영화는 음악적인 면에서 내적 울림의 진폭이 크고, 회화적인 면에서 시적 이미지를 빚어내는 독창적 표상과 기호를 나타낸다. 또한 문학적 면에서 영화는 형식적으로는 탈문법성을, 내용적으로는 인간적 이상에 대한 소망의 실현을 지향한다. 안토니오니와 빔 벤더스가 공동 연출한 영화 〈구름 저편에〉의 "현

실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진실은 침묵으로부터 들린다"는 대사는 영화와 시가 만나는 접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올리비앵 몽쟁의 시네마 에세이 《이미지의 폭력》(이은민 옮김, 동문선)은 영화를 통한 폭력의 사회학적 분석이다. 저자는 폭력이 등장하는 영화를 세밀히 검토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영화들이 폭력을 환기시키고, 또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은이는 마틴 스코세지와 스텔리 큐브릭 감독처럼 이미지가 폭력을 물리치고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는 영화도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타인을 향한 시선, 그와 맺고 있는 관계는 이미지를 바라보는 방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영화는 일차적으로 정서적 감동과 인간 상상력의 등가물이다. 이론적 분석의 너머에 있다는 애기다. 하지만 영화가 인간의 삶에서 비롯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미학적 해석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인문학은 영상이미지의 폭력에 대한 브레이크다. 인문학과 영화의 대화는 이제 시작이다. 당대적 현실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읽어내야 할 영화는 앞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제 영화를 읽는 인문학자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질 듯하다.

— 박천홍 기자